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영주시 마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휴천2동·휴천3동)

골목의 불 다시 켜는 생활 정치

1

희망찬 여당 후보

목승균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영주시 마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①	더불어 민주당	목승균	남	1964.10.29. (61세)	영주스포렉스 대표	충북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현)영주시 보디빌딩협회 회장 (현)커피스쿨바리스타학원 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134,290	1,932,590	201,700	0	장남: 고지거부	육군 병장 (만기전역)	-장남:육군 병장 (만기 전역)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 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37,831	0	0	1. 업무상배임: 벌금 300만원(1999.10.0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5.04.29) 3. 상해 재물손괴: 벌금 200만원(2015.08.26).
후보자	34,348	0	0	
배우자	661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2,822	0	0	

4. 소명서

1.업무상배임은 축협 근무 당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료를 추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시 사료 공급이 중단되면 사육 중인 닭이 폐사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음주운전 역시 10여 년 전의 일로,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며 살아왔습니다.

3.상해는 지인과의 의견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잇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오며
행정과 시민 삶 사이의 거리를
직접 느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한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이제는 그 책임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천2·3동은
대형사업보다 생활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골목, 교통, 상권, 어르신 삶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행정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목승균



1
확실한 여당 후보
목승균
더불어
민주당

우리 동네의 아침을 생각났습니다

새벽을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시간,
김밥집, 국밥집, 작은 가게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골목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저는 이 변화를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1
더불어
민주당

확실한 여당 후보

목승균이



시의원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만나고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시의원의 시작입니다.
저는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변화를 만듭니다

개나리APT2,3,4차
재건축추진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휴천 2·3동
이 하겠습니다

1 골목이 살아야 동네가 살아납니다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들도 버티는 일조차 힘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자부심을 지키고,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살아나는 휴천23동을 만들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물류허브구축
그 중심에 휴천23동이 있습니다



01 골목 경제 활력 회복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입니다.

'자금심 현판 제도' 도입

1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가게를 발굴해 '영주 장인 가게'로 인증하고 시 공식 현판 부착과 홍보 지원 추진

➔ 골목의 역사와 상권을 동시에 살리겠습니다

공실 상가 대응 정책 마련

- 상가 공실 실태 조사 → 원인 분석 → 맞춤형 대책 수립
- 업종 전환, 임대 연계, 창업 연결 지원 검토

02 상생형 지역경제

지금의 자영업은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살아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새벽 가게 축제' 추진

- 연 1~2회, 2~3일 운영
- 시 일부 지원으로 상인 부담 완화
- 주민 참여형 소비 확대

➔ 손님이 찾아오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실질 지원 강화

단순 보조가 아닌 홍보·유입·매출로 이어지는 정책 중심 전환

03 청년 기회 적극 확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직업체험 지원사업

- 희망 업종 3곳에서 각 1개월 실무 체험
- 참여 비용 일부 시 지원

➔ 청년의 도전이 가능한 동네로 바꾸겠습니다

자영업 연계 경험 제공

- 지역 자영업자와 청년 연결
- 기술·경험 전수 + 소득 기회 창출

“버티는 동네가 아니라, 살아나는 동네로 바꾸겠습니다”

작은 불편부터 바꾸겠습니다

1



비가 오면 걱정되고,
어두운 골목은 불안한 동네.
이제는 바뀌야 합니다.
하수도와 골목 안전부터
어르신 복지와 생활 불편까지
시민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비만 오면 역류하고
악취가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 전면 실태조사 실시
- 노후 배관 단계적 교체 추진
- 상습 침수·역류 지역 우선 정비

➔ 환경이 바뀌면
동네가 바뀝니다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
- 보행환경 개선 (슈터·손잡이 등)
- 생활밀착 시설 지속 정비

➔ 시민의 하루를
바꾸겠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 CCTV 확대 설치
- 안전 사각지대 집중 관리
- 가로등·보안시설 보완 추진

➔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편안해야
동네가 따뜻해집니다.

- 목욕권 확대 추진 (월 2회)
- 경로당 시설 개선 (지붕, 창문, TV 등)
- 경로당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이 편해지는 변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동네
다시 웃는 휴천2·3동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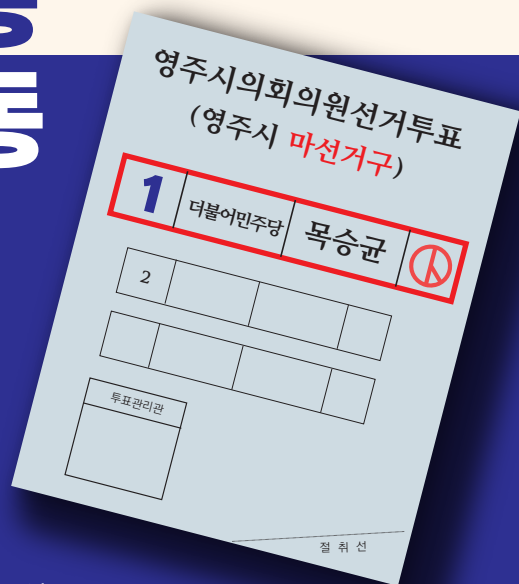
휴천2동 휴천3동

학력

영주남부초등학교(13회) 졸업
영주중학교(29회) 졸업
영주중앙고등학교(6회) 졸업
충북대학교 농공학사

경력

전)영주중앙고 총학생회 회장
전)대영중고 운영위원장
전)휴천2동 체육회장
전)영주축협 22년 근무
전)전국축협노동조합 경북본부장
현)영주시 보디빌딩협회 회장
현)영주시 목욕업협회 회장
현)영주스포렉스 대표
현)커피스쿨 바리스타학원장



1

확실한 여당 후보

목승권